

## 學校給食效果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醫科大學 生化學教室

成 樂 應

###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Feeding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k Eung Sung, M.D., Ph.D.

#### =Abstract=

The effect of author's recipe of milk-substituting food was studied on 164 children of a primary school. Dividing the subjects into tow groups, A and B respectively, the former being fed with the author's food and the latter served as control, feeding was continued for 6 months daily at lunch hour,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The effect of the author's milk-substituting food on the body-physique of the children could not be evaluated because of the short period of observation.

(2) As observed clinically, various nutritional deficiency symptoms, such as anemia, angular scar glossitis, and hyperkeratosis, were far less frequently occurred in the fed group, while no such significant reduction of occurrence was noted in the control group.

It was concluded from the above results that the well-balanced school feeding to the children is necessary.

#### I. 緒 論

國力은 國民의 體位·體力에 比例한다. 即 國力은 體力으로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經濟成長이 이루어지고 國民所得이 높다 하여도 또는 機械文明이 發達하여 機械的인 國防力이 強하다고 하여도 國民의 體位·體力이 이에 따르지 못하면 그 나라의 將來는 암담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先進國에서는 앞을 다투며 國民體位·體力發展策을 講究하고 있으며 그 좋은 標本이 世界올림픽大會라 하겠다. 우리 나라도 이런 點을 考慮하여 國際大會選手養成에 莫大한 豫算을 投入하면서 努力하고 있으나 아직 좋은 效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點 著者は 數次의 國際大會에 選手를 引率하고 參席하여 언제나 느끼는 點은 우리의 技術不足보다는 選手自身의 體位와 體力이 他先進國에 比하여 뒤지고 있는 點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二次大戰終末까지만 하여도 우리 國民의 體位·體力은 日本을凌加하고 있어 어떤 競技에서는 優位에 있었으나 現在 20代前後한 國民의 體位·體力은 뜻

있는 이 누구나가 認定하고 있드시 日本에 뒤지고 있는 것이 事實이고 實際 金<sup>4</sup>, 李<sup>1</sup>, 李<sup>2</sup>, 李<sup>3</sup>等도 이를 主張하고 있는 바이다. 한편 韓國營養實態調查結果<sup>18</sup>로는 우리 어린이의 營養素攝取狀態가 先進國의 그것에 뒤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國民의 體位·體力에 響影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이 報告에서 특히 漁村어린이의 發育狀態가 農村·都會地어린이보다 좋다는 點은 食餌攝取狀態 特히 蛋白質과 칼슘 摄取狀態와 어떤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어 興味 있는 事實이었다. 李<sup>3</sup>等도 韓國國民學校 어린이의 各種營養素 特히 蛋白質, 칼슘 및 一部 바이타민 摄取에 있어 要求量에 未達된다는 點과 이에 따라 成長發育이 소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人間의 發育에 가장 重要한 時期가 離乳期로부터 學齡期까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先進國에서는 離乳期에 對한 父母들의 營養에 對한 啓蒙은勿論 各種離乳食開發에 主力하고 있으며 學齡期兒童에 있어서는 學校給食을 莫大한 國家豫算을 消費하면서 遂行하고 있

\* 본 논문의 경비의 일부는 197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로 충당하였음.

으며 父母들의 説得으로 自費負擔을 시켜가면서까지 校給食을 勸奨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日本만 하여도 校給食의 重要性을 切感하여 1956年頃부터 本格的인 校給食을 實施하고 있는 바이다. 川畑<sup>5</sup>等에 依하면 日本에서 처음 校給食을 始作할 적에는 떳은 難點이 있었으나 行政府의 強力한 推進과 學父母의 積極協調로 現在 큰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即 川畑等<sup>5</sup>은 校給食實施地域과 非實施地域과의 어린이 成長發展狀態에 顯著한 差位를 發見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金<sup>6</sup>等에 依하면 校給食實施校와 非實施校兒童間에 身長發育에는 큰 差가 없었으나 臨床的面에서는 좋은 効果를 보았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校給食이 1953年 UNICEF의 協助로 脫指粉乳供給, 1966年부터 USOM의 援助로 밀가루에 依한 빵의 供給을 實施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校給食이라기보다는 하나의 缺食兒에 對한 對策이고 營養面에 對한 考慮는 조금도 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가 1968年부터 서울 一部 國民學校를 示範校로 指定하여 政府와父母의 半半負擔으로 營養面을 감안한 校給食을 實施하고 其效果를 研究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國民의所得이 낮고 必要한 農畜產物의 供給不足도 겸해서 校給食의 必要性을 알면서도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이런 點을 감안하여 著者는 原料面에서 考慮하고 製造價格이 低廉하여 低所得層에서도 充分히 利用할 수 있고 國家負擔도 적은 豫算으로 校給食시킬 수 있으며 營養面에서도 우리에게 不足기쉬운 營養素를 補充할 수 있는 校給食用 食品을 開發코자 하였던 바 牛乳生產高가 不足하고 價格이 所得에 比하여 높아 利用못하는 兒童에게 低廉한 價格으로 提供할 수 있는 牛乳의 代用品을 開發하여 그의 兒童에 對한 校給食試驗을 하여 좋은 成果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이 製品의 營養學的인 檢討는 別途 報告코자 한다.<sup>10</sup>

## II. 實驗方法 및 材料

### 1. 材 料

實驗對象者：서울市內 某國民學校 4學年兒童(年齡 9~11歲)을 2群으로 區分하여 A群은 投與群 B群은 非投與群으로 하였다.

2. 實驗期間：1970年 9月부터 1971年 2月末까지 6個月間으로 하였다.

3. 投與하기 前：各群에 있어 體位(身長, 體重, 上腕圍, 피부두점집기) 및 營養不足症을 調査하였다.

4. 投與方法：別表組成에 依한 製品을 每日 畫食時

도시락과 같이 投與하였고 도시락不持學生에게는 도시락에 該當하는 다른 食品을 投與하였다.

5. 實驗期間中 各兒童에게 앙케트式으로 製品에 對한 善好等을 調査하였다.

6. 實驗終了時 體位는 測定치 못하였으나 臨床的인 營養不足症에 對한 調査는 實施하였다.

7. 投與한 製品의 組成은 다음과 같다.

水 分	2.4%	Ca.	470mg
灰 分	3.5%	Fe.	17mg
脂 肪	10.8%	P.	120mg
蛋白質	23.6%	Vitamin A	2000 IU
糖 質	59.7%	B <sub>2</sub>	1.0mg
		C	40mg

[註] 製品의 主原料는 大豆, 小麥粉, 米粉, 粉乳이며 其他 Ca, Fe, 各種 바이타민을 強化하였으며 어린이의 善好에 따라 chocolate 또는 vanilla flavor를 加味하였다.

## III. 實驗成績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實施前：身長에 있어 投與群 非投與群 共히 男兒는 125.0~131.4 cm이었으며 女兒에 있어서는 128.0~132.8 cm이었다. 體重은 男兒에서 27.0~28.0 kg이었으며 女兒에 있어서는 25.1~27.3 kg이었다.

上腕圍은 男兒에 있어 17.1~18.5 cm이었고 女兒에 있어서는 17.5~18.8 cm이었다.

피부두점집기：男兒는 上腕後側에 있어서 3.8~4.0 mm, 女兒에서는 3.9~4.0 mm이었다.

營養不足症：貧血은 A群에서 約 30%, 口角炎이 約 70%, 舌炎이 約 45%, 皮膚角化症이 約 12%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B群에서는 貧血이 約 27%, 口角炎이 約 85%, 舌炎이 約 44%, 皮膚角化症이 約 0.7%로 나타나고 있어 A群과 B群에 있어 큰 差位가 없었다.

2. 投與 6個月後狀態：身長, 體重, 上腕圍 및 피부두점집기는 校便宜上 實施치 못하였으며 第2次 實驗에서 다시 檢討할 豫定으로 있다.

臨床의 으로 營養不足狀態는 A群에서 貧血은 約 0.8%, 口角炎 約 1%, 舌炎은 症例가 없어졌으며 皮膚角化症은 0.5%로 各症狀이 顯著하게 減少되었음을 알수가 있으나 B群에 있어서는 貧血 37%, 口角炎 95%, 舌炎 65%, 皮膚角化症 0.4%로 增加하고 있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現狀은 實施期間이 冬期에 걸쳐있어 우리나라 食品의 摄取不均衡이 큰 原因이라고 考慮된다. 即 身體發育面에서는 實施치 못하여 效果를

Table 1. Incidence of Nutritional Deficiency(A group)

년령	수	남·여	신장	체중	상원위	피부두 검집기	빈혈		비롯점		구각염		설염		각화증	
							實施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7		남														
	2	여	128.0	27.6	19.0	4.0										
8	16	남	131.1	28.0	17.8	4.0	3	1			10	5	8	0	2	1
	7	여	129.0	25.1	17.8	3.8	6	2			5	0	5	0		0
9	23	남	131.4	27.9	18.0	3.9	6	0			26	2	9	0	4	2
	28	여	131.3	26.4	17.8	3.9	9	3			18	1	12	0	3	1
10	1	남	126.0	25.0	18.0	4.0	1	0			3	0	1	0		
	0	여														
11	1	남	131.0	29.7	18.5	3.7					1	0				
	1	여	132.8	27.3	17.5	4.0										
계	80						25	6			53	8	35	0	10	4

(B. group)

년령	수	남·여	신장	체중	상원위	피부두 검집기	빈혈		비롯점		구각염		설염		각화증	
							實施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前	後
7	2	남	125	23.5	17.1	3.75					2	0	2	2	1	1
		여														
8	32	남	130	27.2	17.6	3.8	17	19			20	15	10	18	3	2
	19	여	130.9	25.7	18.5	4.2	3	2			10	22	9	15		
9	7	남	132.3	25.7	17.3	3.8	2	5			14	19	4	3		
	20	여	129.4	23.0	18.8	4.0	1	2			1	5	8	10		
10	0	남														
	1	여	131.0	23.7	17.0	4.3					1	0				
11	0	남														
	0	여														
계	81						23	,28			68	71	33	48	4	3

發見치 못하였으나 營養不足症 特히 各種 바이타민, 蛋白質等의 不足症狀은 크게 減少된 것으로 알고 있다.

### 3.表 2,3,4에서 製品에 對한 兒童의 官能實驗結果이다.

一般的으로 flavor로 써는 vanilla 보다는 chocolate

를 좋아 하였고 三次에 걸친 調查結果는 表 2,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製品自身에 對하여도 表 2,3,4에서 보는 바와 같아 맛, 냄새, 단맛 等 모두 良好하였고 즐겨서 마시는 傾向이었고 級食量에 있어서는 一回 35~45 g 를 150 ml의 热湯에 溶解시켰던 바 量的으로도 充分하고 適當하다는 意見이 많았다.

Table 2.

제 1 회 기호성조사

11 월 4 일

		아주좋다	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아주나쁘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초코렐	27	29	17	1	3	4	
맛	초코렐	33.3	35.8	21	1.2	3.7	4.9		
		3	22	28	18	6	4	81	
냄새	초코렐	3.7	27.2	34.6	22.2	7.4	4.9		
		23	36	15	7			81	
단맛	초코렐	28.4	44.4	18.5		8.6			
		8	63	8	2			81	
급식량	초코렐	9.8	77.8	9.8	2.5				
		21	43	13	4			81	
두가지중	초코렐	25.9	53.1	16	4.9				
		18	51	7	5	0		81	
급식횟수	초코렐	22.2	6.3	8.6	6.2				
		6	32	24	12	7		81	
의견		7.4	39.5	29.6	14.8	8.6			
		69	11		1			81	
		85.2	13.6		1.2				
		계속해서 바닐라	계속해서 초코렐	둘다 먹음	번갈아	무응답자	합계		비고
		2	41	37	1			81	
		2.4	50.6	45.7	1.2				

Table 3.

제 2 회 기호성조사

11 월 20 일

		아주좋다	좋다	보통	조금 나쁘다	아주 나쁘다	무응답자	합 계	비 고
맞	초 코 렐	32	24	17	5	3	0	81	
		39.5	29.6	21.0	6.2	3.7			
	바 널 라	6	18	32	14	6	5	81	
		7.4	22.2	39.5	17.3	7.4	6.2		
		약 하 다	좋 다	너무강하다	무응답자	합 계	비 고		
념 새	초 코 렐	1	71	9	0	81			
		1.2	87.7	11.1					
	바 널 라	17	48	12	4	81			
		21	59.3	14.8	4.9				
		달지 않다	좋 다	너무 달다	무응답자	합 계	비 고		
단 맞	초 코 렐	3	68	10	0	81			
		3.7	84.0	3.7					
	바 널 라	10	52	15	4	81			
		12.3	64.2	18.5	4.9				
		모자란다	알 맞다	좀 많다	너무 많다	무응답자	합 계	비 고	
급 식량	초 코 렐	11	55	9	6	0	81		
		13.6	67.9	11.1	7.4				
	바 널 라	2	38	26	11	4	81		
		2.5	46.9	32.1	13.6	4.9			
		초코렐 영양식 이 좋다	바닐라 영양식 이 좋다	무 응 답 자	합 계	비 고			
두 가 지 중		63	16	3	81				
		77.8	19.8	3.7					
		계속해서 바 닐라	계속해서 초 코렐	둘다 번갈아 먹음	무응답자	합 계	비 고		
급 식 횟 수		3	27	49	2	81			
		3.7	33.3	60.5	2.4				
의 견									

Table 4.

제 3회 기호성조사

12월 21일

			아주좋다	보통	조금 나쁘다	아주 나쁘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초코렐	21	28	18	10	1	78	
			초코렐	26.9	35.8	23.2	12.8	1.3		
			바닐라	3	22	23	17	6	78	
			초코렐	3.8	28.2	29.5	21.8	7.7	9.0	
			바닐라							
			약하다	좋다	너무강하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초코렐	5	62	10	1	78		
			초코렐	6.4	79.5	12.8	1.3			
			바닐라	13	47	12	6	78		
			바닐라	16.7	60.3	15.4	7.7			
			달지않다	좋다	너무달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초코렐	6	60	10	2	78		
			초코렐	7.7	76.2	12.8	2.5			
			바닐라	11	43	17	7	78		
			바닐라	14.1	55.1	21.8	9.0			
			모자란다	얼맞다	좀 많다	너무 많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초코렐	5	30	26	15	2	78	
			초코렐	6.7	38.5	33.3	19.2	2.5		
			바닐라	3	24	22	22	7	78	
			바닐라	3.8	30.8	28.2	28.2	9.0		
			초코렐 이 좋다	바닐라 이 좋다	무응답자	합계	비고			
			45	17	16	78				
			57.7	21.8	20.5					
			계속해서 바닐라	계속해서 초코렐	둘다 먹을	번갈아	무응답자	합계	비고	
			3	21	54	0	78			
			3.8	27.0	69.2					
의견										

#### IV. 考 察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身長, 體重, 上腕圍, 臼部 두겹집기에 있어 人員數가 많지 않아 平均值만 가지고 論하건데 1967 年度 小兒科學會에서 發表된 數值<sup>20)</sup>와 큰 差가 없으며 金<sup>4)</sup>, 李<sup>3)</sup>, 李<sup>2)</sup>等의 報告된 바와도 差이가 없음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小兒科學會에서 指摘한 바<sup>20)</sup>나, 李<sup>2)</sup>等이 指摘한 바와도 같이 우리나라 兒童의 體位는 出生時에는 歐美各國이나 日本人의 그것에 比하여 멀어지지 않고 도리혀 日本人의 그것보다 優位에 있으나 離乳期부터 漸次 뒤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點은 Bunce<sup>11)</sup>, Osborn et al.<sup>12)</sup>, Hegsted et al.<sup>13)</sup>, 等이 指摘한 바 發育에 必要한 要素가 蛋白質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中에서도 動物性蛋白質의 摄取狀態가 크게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점은 또한 權等<sup>15)</sup>, 金等<sup>16)</sup> 姜等<sup>17)</sup> 亦 主張하듯이 我們의 食品中에 蛋白質의 不均衡, Ca 摄取不足이 큰 原因으로 되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Lee et al.<sup>6)</sup>, 權<sup>19)</sup>等은 이런點을 考察하여 離乳食을 開發하였고 成等<sup>19)</sup>도 離乳食을 開發하였다. 이런 食品은 主眼點을 蛋白質의 均衡, Ca 补充 바이타민 強化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姜<sup>7)</sup>, 姜等<sup>8)</sup>, 洪<sup>9)</sup> 等도 우리 어린이의 發育이 離乳期營養狀態不良과 學齡期의 不均衡된 營養供給에 起因한다고 하고 있다. 1968 年度 國民營養調查結果서<sup>18)</sup> 漁村兒童의 成長發育이 카로리의 摄取가 農村이나 都會地보다 低值임에도 좋다는 것이다. 그것은 食品攝取狀態에 있어 漁村에서는 于先 動物性蛋白質攝取가 農村이나 都會地의 倍加된다는 事實과 比例되고 있는 것이다. 本實驗에서 製造된 食品은 이점을 考慮하여 FAO/WHO에서 指定한 蛋白質要求量<sup>14)</sup>을 充足시킬 수 있도록 配合되어 있고 Osborn et al.<sup>12)</sup>, Hegsted et al.<sup>13)</sup>等이 主張한 바 PER를 充分히 考慮한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今次實驗에서는 期間이 짧아서 身體 發育面은 考察치 못하였으나 第2次 實驗에서는 1年을 두고 考察할 豫定으로 있다. 그러나 金等<sup>5)</sup>은 身長面은 큰 效果가 없었으나 其他 體重, 上腕圍, 臼部 두겹집기에 있어서는 좋은 效果를 보았다고 報告하고 있다. 川畑等<sup>5)</sup>도 日本兒童에 있어 學校給食의 有意義性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어린이 食品이 一般的으로 營養不均衡을 이루고 있고 더구나 缺食兒가 平均 30%를 차지하고 있는 現在 學校給食效果는 뚜렷할 것으로 보고 있다.

**臨床的 考察:** 各種營養不足症에 있어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投與前과 投與後 投與群과 非投與群과의 比

較는 뚜렷하였다. 即 貧血은 投與群에 있어서 投與前의 30% 發生率이 投與後 0.8%로 줄었고 口角炎은 投與前에 70%가 投與後 1%로 줄었고 舌炎같은 것은 投與前에 45% 이런것이 全無狀態로 되었으며 皮膚角化症도 投與前에 12% 이런것이 0.5%로 低下되는 傾向이었다. 그러나 非投與群에 있어서는 貧血이 投與前에 27%가 實驗終了時 37%가 되었고 口角炎은 85%가 95%로, 舌炎도 44%가 65%로 되었으며 皮膚角化症은 0.7%가 0.4%로 되는等 皮膚角化症을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큰 變化가 없었으나 增加하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 營養不足症中에서 가장 큰 問題가 되고 있는것이 口角炎, 舌炎 및 皮膚角化症이라고 알고 있다. 1968 年 韓國營養學會에서 調查한 例를 보건대<sup>18)</sup> 우리나라 어린이의 바이타민 B<sub>2</sub> 摄取量은 勸獎量의 50% 內外라고 보고 있으며 이점은 李等<sup>3)</sup>이 調查한 報告에도 나타나 있고 1967年成<sup>21)</sup>이 우리나라 國民學校兒童의 血清內 바이타민 B<sub>2</sub> 含量과 口角炎 發生率을 指摘한 바에도 있드시 바이타민 B<sub>2</sub>가 不足하여 한참 發育期의 兒童에 있어 큰 支障을 주고있는 것이 事實이고 이 不足症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當然한 疾患으로 되어있어 何等의 注意를 끌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도 하나의 營養不足症이고 보면 이에 對한 對策이 至急한 것이라고 본다. 바이타민 A 亦是 李等<sup>3)</sup>이 指摘하고 있드시 우리나라 食品에 動物性脂肪의 摄取가 적어서 바이타민 A는 主로 β-carotene 으로 取하고 있으며 이것은殆半不足이라는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皮膚疾患이 많은 原因이라던지 冬季의 呼吸系疾患의 發生率이 많은 原因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바이타민 A가 發育成長과 큰 關係가 있고 보면 이 바이타민 補給은 至急한 問題로 되어 있다. 한편 貧血에 있어서는 其發病原因이 鐵分不足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動物性蛋白質攝取不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1968 年度 國民營養調查結果<sup>18)</sup>에서 보건대 蛋白質의 量的攝取問題는 그리 큰 問題가 되지 않겠으나 質的面에 있어서 動物性蛋白質 摄取量이 勸獎量의 1/3~1/4 밖에 되지 않고 보면 이것은 어린이 發育이 Bunce等<sup>11)</sup>이 말하듯이 그 取하는 蛋白質內의 必須아미노酸 樣相에 있다고 보면 我們의 食事樣相은 特히 離乳期부터의 어린이 食品의 質的問題는 改良할 必要性을 느끼는 바이다. 이런 關係로 權等<sup>15)</sup> 金等<sup>16)</sup> 亦 Lee et al.<sup>6)</sup>도 指摘한 바 있드시 特히 離乳食開發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바이다. 그리고 FAO/WHO<sup>14)</sup>에서도 發育期 兒童의 蛋白質要求量에 對하여 研究報告한바 있다.勿論 學齡期前後어린이의 血清內 鐵分含量과 貧血의 頻度에

對한 蔡等<sup>21)</sup>의 報告가 있어 特히 貧民層兒童에 一般的으로 많다고 되어 있으나 1968年 調查한 國民營養調查<sup>18)</sup>에 依하면 鐵分攝取는 그리 큰 問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今番 어린이 對象者들의 血液成分의 生化學的 檢討를 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生覺되고 있으나 그러나 著者の 意見으로는 貧血의 發生率은 必須아미노酸 摄取 또는 缺食으로 오는 全體의營養不足으로 보고 있다. 著者の 製品에 있어서는 以上 論述한 韓國人 食品攝取狀態에 있어 特히 어린이에 있어 缺乏되기 쉬운 營養素의 補強을 營主로 하였고 表 2, 3, 4에서 보다 싶이 官能検査로도 좋은 評을 받아 兒童들에게 每日 充分한 量을 投與하여 各種不足하기 쉬운 營養素를 充分히 補充하여 준 結果라고 보겠다.

## V. 結論

市內 某國民學校 어린이 164名을 2群으로 區分하여 A群은 投與群, B群은 非投與群으로 하여 著者が 處方한 離乳食을 兼한 牛乳의 代用食을 製造하여 6個月間 每日 畫食時間에 畫食과 함께 一定量을 投與한 바 아래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體位面에 있어서는 時期關係로 變化를 檢討치 못하였다.

2) 臨床面에 있어 各種營養不足症 即 貧血, 口角炎, 舌炎, 皮膚角化症 等은 投與群은 그 發生率이 顯著히 減少되었고 非投與群은 큰 變化가 없었다.

以上으로 國民校兒童에 있어 무엇보다도 至急한 것은 營養學의 으로 均衡이 잡힌 學校給食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 參考文獻

- 1) 李榮子, 公衆保健雜誌 : 4. 121, 1967.
- 2) 李鍾盛, 成樂應 : 스포츠科學報告書 5.153, 1968.
- 3) 延世大學家政大學, 醫科大學報告書, “韓國國民學校兒童 및 그家族에 對한 營養實態調査에 關한 研究” 1967~1968.
- 4) 金命錫等 : 中央醫學 20. 49, 1971.
- 5) 川畑愛義等 : 學校給食と日本人の發育發達, 醫藥出版(株) 1966.
- 6) Lee, K.Y. et al.: J. Am. Dietit. Assoc. 43. 457, 1963.
- 7) 장신구, : 公衆保健雜誌 9. 223, 1966.
- 8) 姜英蒙, 金仁達 : 公衆保健雜誌 : 5. 517, 1968.
- 9) 洪彰義, 最新醫學 : 5. 29, 1952.
- 10) 權泰完, : 韓國食品科學研究, 2. 96, 1970.
- 11) Bunce G.E. et al.: J. Nutr., 98. 168, 1969.
- 12) Osborn T.B. et al.: J. Biol. Chem. 37. 223, 1919.
- 13) Hegsted, D.M., et al.: J. Nutr. 85. 159, 1965.
- 14) FAO/WHO: Protein Requirement, Nutritional Studies, No. 16, 1957.
- 15) 權泰完等, : 韓國營養學會誌 3. 129, 1970.
- 16) 金淑喜等, : " 3. 95, 1970.
- 17) 尹鍾俊等, : " 3. 65, 1970.
- 18) 韓國營養學會, " 3. 1, 1970.
- 19) 成樂應等 : 未發表
- 20) 成樂應 : Vitaminology. 14. 6, 1968.
- 21) 蔡範錫等 : 韓國營養學會誌 3. 149, 1970.